



# 주체적인 성장을 즐기는 김용찬

## [자기소개]

### “주체적인 학습 및 성장”

- **JAVA, Spring Boot, Thymeleaf, MariaDB를 사용한 MVC 패턴의 게시판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인 CRUD, 페이징 처리 및 검색 기능을 구현한 뒤 **AWS EC2 리눅스 서버에 배포**하였습니다.
-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무작정 강의내용을 클론하는 것을 1순위로 경계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학습하고 있는지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작성 중인 코드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가졌는지 의식적으로 생각한 결과,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 당장 해당 게시판에 여러 기능들을 추가해가며 프로젝트를 develop 시키는 것보단 현재 진행한 부분에 대해 깊이 이해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Spring 핵심 원리, RESTful API, HTTP 등 웹 개발 관련 지식들을 쌓는 데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 클라우드 전공수업에서 Virtual Machine과 Container Engine의 차이를 학습하고 python과 Flask로 만든 간단한 투표 웹 어플리케이션을 MSA 구조로 쿠버네티스 환경에 직접 배포해보았습니다.

###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

- 원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인터에 대해 이해한 후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해가 깊어 졌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목적과 원칙들을 이해한 후 JAVA와 Spring Framework 학습 방향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 CS 전공지식,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 간에 많은 꼬리 질문들이 스스로 생겨났었고, 이에 대한 구글과 Stack Overflow의 방대한 자료들이 소설책처럼 느껴졌습니다. 꼬리 질문들을 파고들어 원리를 이해할 때 쾌감을 느낍니다. 바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은 개인 노션 페이지에 카테고리를 나눠 기록해 재학습하고 있습니다.

## [지원동기]

---

### “성장 속의 성장”

- 성장하는 조직 속에서 더욱 빠르게 성장하는 저는 개발자라는 직업을 결정한 뒤로, 일을 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할 자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일원이라는 책임감 아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

## [성격의 장단점]

---

### “섬세함과 책임감”

- 저는 굉장히 섬세한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의도를 빠르게 캐치하고 전달하려는 바를 확실하게 전달하며 상대의 말에 대해 이해한 바를 확실하게 확인합니다. 이는 무슨 일을 하든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제게 체화되어있는 성격임에 자신 있습니다.
- 조직의 일원이 됐다면,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본질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하면서 역량이 부족하여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높은 집중력과 끈기로 매우 빠르게 성장합니다.

### “고집”

- 원리 위주의 학습에 몰두하여 가볍게라도 써볼 수 있던 기술들을 원리를 잘 모른다는 고집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피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열려있지 않았던 제 모습은 개발자로서 지양해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현재는 잘 모르던 개념들도 익숙해짐에 따라 퍼즐이 맞춰지듯 숙련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낀 후, 열린 개발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 [입사 후 목표]

---

- 제가 키워온 개발역량은 아이겐코리아의 프로젝트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4개월의 시간 동안 주어진 실습생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빠르게 성장하여 2023년 2월 졸업 후, 아이겐코리아에 기여할 수 있는 든든한 인재로 발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